

2023학년도 수시모집 실기고사 기출문제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디자인학부 무대미술전공 디지털콘텐츠 전공	기초디자인		<p>(문제은행 10번, 17번)</p> <p>인쇄물로 제공된 사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디자인 하시오.</p> <p>**주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말 것. 2. 제공된 사물의 색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 3. 제공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 4.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것. 5. 화지방향은 가로로만 할 것.
영화영상전공 (연기)	실기 고사 [지정 연기]	소재	<p>내가 견디 수 없는 촌스런 인간이래 개가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 뭔지 정확히 알아. 넌 그냥 딱 촌스런 인간이고, 난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 경계선 상의 인간. 개가 경기도 보고 똘레는 줄 아냐? 경기도는 땅 계란 흰자 같데.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내가 고산시 산다고 해도, 고산시가 어디잇는지를 몰라. 내가 1호선을 타는지 4호선을 타는지... 뭐 어차피 자기는 경기도 안 살건데 뭐하러 관심을 갖냐고... 뉴욕은 아니여도 적어도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왜 하필 계란 흰자에서 태어나가지고...</p>
		소재	<p>“당신은 불쌍한 인간이요. 아니 당신보다 당신을 가르쳤다는 학교가 나는 더욱 불쌍하오. 학교가 당신에게 어휘를 가르치구 허영을 길러주구 따라서 더러운 낙원을 꿈꾸게 하였소. 세상 놈들이 거지를 보고 침을 뱉으면 당신도 그 거지에게 침을 뱉을 사람이요. 그렇지요? 진정으로 말할 때는 진정으로 말하구 농담으로 말 할 때는 농담으로 대답해야지. (기가 막히는 듯이 웃으며) 흥미는 무슨 흥미며 재미는 무슨 재미냐. 들어가는 것이라고는 누더기를 쓰고 빌어먹는 거지나 해골이 다 들어가는 무리들이 주리고 추위에 못 견기는 것뿐인데 그건이 흥미있게 보이시오?”</p>
		소재	<p>정말 이러시기예요? 가시관이 머리를 찢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세요? 똥주하는 꼴 좀 보라구요. 학생 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지 맘대로 학생이나 두드려 패고 선생이라는 작자가 인성이 저 따윈데 학생들에 뭘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되니 머리가 돌아 버렸나봐요.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이에요. 그것도 필리핀사람이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여주시는거요 똥주 말이에요. 아주 확실하게 보내주세요. 두 번 다시 못 돌아오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안들어주시면 저 진짜 절로 갑니다. 그럼 이만 아멘!</p>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연극전공 (연기)	실기 고사 [화술]	소재 <p>아, 찾았구나! 오늘 아침 눈 속에서는 경멸을 받더니 영킨 전깃줄 속에서는 환영을 받는구나. 길은 다 지나 이제 내 뒤에 있어. 이제 나는 혈떡이며 위로 뻗어 있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지. 내 힘은 탕진되었어. 나는 내 몸을 아끼지 않았어. 나는 내 길을 어렵게 택해왔어. 쉬울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왜 그리 주저했지? 왜 내가 그 험한 길을 택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그곳에 양상한 뼈로 앉아 있구나. 아침부터 자정까지 나는 쳇바퀴 속에서 돌고. 그리고 이제 너의 손가락이 손짓하며 길을 가리키고 있군. 어디로 말이야?</p>
		소재 <p>우리 엄마, 윤마담은 내가 열다섯 살 때 여관을 하던 홀아비 노인과 재혼을 해버렸습니다. 훨씬 뒤에 난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죠. 미션 계통의 어느 지방대학 기숙사에서 관리인 노릇을 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고모와 함께, 두 번째는 나 혼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아버지가 거길 그만두고 떠나 버린 다음이라 만날 수가 없었죠. 한영덕 씨가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고서도 난 울음이 나오질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한영덕 씨는 시대와 더불어 껌껌한 어둠 속에서 박제될 거예요. 저 정지된 폐허 가운데 들꽃과 잡초에 뒤덮여 쓰러진 녹슬은 기관차처럼 그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p>
		소재 <p>우리한테 내일이 뭔데? 그냥 오늘이야. 어제는? 그것도 그냥 오늘이지. 항상 그렇게 살았어. 매일을 그렇게 살았다고. 세상엔 내일이 없는 인생도 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 있다고. 길에서 악을 품고 어묵을 팔아봐라.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묵 팔고 있을걸? 책을 수백 권 사서 죽어라 공부해 봐. 사법고시? 아마 그때도 오늘일걸? 해 뜬 줄도 모르고 방바닥에서 뒹굴거리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다 또 자겠지. 그게 우리잖아.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잖아. 모르지. 모를 수밖에.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고 해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p>
		소재 <p>저예요. 아뇨, 아무 일도, 지금 막 점심 먹으려던 참예요. 샌드위치 괜찮아요. 가구점에서 왔어요? 어때요? ... 잘 살펴 보셨어요? 네, 그럼 됐어요...언니(형이)가 뭐래요? 그럴 테죠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은 들여다 볼 수 있잖아요...네, 알아요...그만 두세요. 난 어머니하고 더 이상 말다툼 하기 싫어요. 애들은 어떡대요?...뭐 평균 85점이면 우수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천재도 아니라고요. ...난 뭐 언니(형) 애들이 바보라는 건 아니구요. 다들 너무 치켜 올리니까 하는 소릴 뿐이에요...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그래요 그 애긴 그만해요. 그럼 이따 봐요...그럼요, 바로 들어가자 제가 어디 가겠어요. 네, 끊어요.</p> <p>★ 전화 통화 상황 ★ 여자일 경우 “언니”로 남자일 경우 “형”으로 호칭할 것</p>
		소재 <p>당신은 걸을 수 있었어. 내 돈 가져갔지. 당신이 돈 가져갔지! 가져갔어! 어디 있어! 난 당신을 먹여 주고 보살펴 줬어. 그런데 내 돈을 훔친다. 내 밥을 먹고 내 침대에서 자면서 내 걸 훔쳐. 당신은 돼지야. 그냥 갖게 할 수도 있었지 않아. 당신 시중을 들어준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돈을 저이가 갖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 당신을 보살펴 주니까. 난 좀 제대로 살아볼 순 없을까? 난 떠날 거야. 다른 곳으로 간다. 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둘이서 내 피를 빨아먹기만 해. 좀 더 나은 곳을 찾아갈 거야.</p>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연극전공 (연기)	실기 고사 [화술]	소재	<p>아줌마, 저 진열장 옆엔 왜 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파출소에서 그렇게 혼쫓이나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까? 꺼내세요. 아줌마 자꾸 그러면 이번엔 내가 아주 신고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아가씨. 비록 안줏감을 손수 만들고 김 선생님을 돕기 위해서 막장을 꺼내온 것도 고맙지만 여긴 자기 집이 아녜요. 칼하고 도마를 사용하더라도 주인의 허락을 얻어야 되고 냉장고 문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식당 누가 소개했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것도 실례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니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예절을 지켜야죠. 우리가 방문하는 집에 피해를 주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래 가지고 화해의 길이 터지겠습니까?</p>
사진영상 미디어전공	사진 촬영 실기	소재	<p>[출제분야] 제한된 공간에서 주어진 주제로 30분 이내 사진촬영 후, 9컷 선정 usb에 담아 제출.</p> <p>카메라의 기계적인 특성과 독창적인 시각을 활용하여 공간감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시오.</p>
디지털만화 영상전공	만화 능력 테스트	소재	<p>나는 3년차 취준생이다. 지금까지 99군데 입사 지원해서 99번 떨어졌고, 오늘이 100번째 면접을 보는 날이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꿈쩍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p> <p>면접 장소에 일찍 도착한 나는 두 가지 일을 했다. 약간 맛이 이상하긴 했지만 허기진 탓에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어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 그리고는 커피 전문점에 들렀는데 생트집을 잡는 손님 때문에 난처해진 귀여운 아르바이트생을 도와주었다.</p> <p>자. 그럼 100번째 면접을 보러 가 볼까?</p> <p>위의 지문 이후 전개될 상황을 네칸 이상의 칸만화로 표현하시오.</p> <p>★ 지문에 제시된 내용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연결성 있게 구성해야 함.</p>